

與, 공소청·중수청법 입법 가속도...19일 본회의의 염두

李대통령 입장 전해지며 민주 '속도전' 정청래 리더십 주목 강경파 조율 관련 조국 "檢독재와 싸운 국민 실망"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의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강경파의 요구가 잇따르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조선훈 의원 만찬을 계기로 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분위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의 후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은 이 대통령이 전날 만찬 자리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와 안정적인 당정 협력 등을 당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외과 시술식' 개혁 원칙을 강조하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주요 입법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전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의 조율이 막판 관건이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여당 간사) 의원은 그동안 정부안을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당내 강경파와의 조율 작업이 길어지면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은 이달 말로 일정 가능성이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당정의 입장과 강경파와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 지가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방향과 처리 속도를 가를 변수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며 "수년간 검찰 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며 "제도 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미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중요하다"며 "특히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에 더해 직접적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하는지, 줄 경우 요건과 범위에 대해 하나하나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민주당 없는 법사위...정회 선포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현안 질의 요구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회의가 열렸고 추미애 위원장은 의사 일정 협의를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광주 국회의원들, 광역의원 정수 조정 촉구

市 23명·道 61명 대표성 불균형 우려 "통합특별시 출범 전 제도 보완 필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 문제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반드시 함

게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과정에서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광주의 인구는 약 139만명, 광주 시의원은 23명인 반면, 전남은 인구 177만명에 도의원 61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 구조가 그대로 통합특별시의회에 적용될 경우 광역의원 1인 당 대표 인구는 광주 약 6만9천명, 전남 약 3만2천명으로 큰 격차가 발생한다"며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커질 경우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이 심화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 편차 3

대1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방의회 의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 정계특위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광주시민의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조속히 논의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변은진기자

권향엽 '자영업 고용보험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16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1천749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7천159명에 달하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3천75명에 그쳐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현행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김해룡 "비민주적 단일후보 찬반투표 중단을"

전남민주진보교육감 공천위 방식 반발 "가처분 등 법적대응 검토...완주할 것"

6·3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김해룡 예비후보가 전남 민주진보교육감 공천위원회(전남공천위)가 추진 중인 단일 후보 찬·반 투표 방식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1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공천위가 장관호 후보만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단일 후보 추천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후보 간 협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90%와 도민공천위원 10% 반영 방식이 기본 원칙으로 합의됐지만, 장관호 후보 측이 90% 반영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 점수 산정 방식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합의된 토론회 일정을 공천위가 일방적으로 취소했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남공천위가 장관호 후보만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사실상 특정 후보 추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남공천위의 절차 추진 방식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김 예비후보는 "교육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힘에 의해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판단은 전남광주특별시민에게 맡기고 교육감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욱기자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1:1 교육	★왕초보 레슨반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구장 실전체험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자격증 취득반	파크골프,지도사2급 파크골프,지도사1급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개인별,수시접수 (이론,실기) 2급/누구나 가능

■ 자격취득반/수시접수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 개인연습/이용자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